

活力이 넘치는 太平洋연안에서의 안전하고 평화적인 原子力이용

한스 블릭스(Hans Blix)

IAEA 사무총장

이 서태평양 지역은 原子力の 어두운 그림자가 깃들여 있던 곳이다.

즉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는 인류최초의 핵폭탄이 투하되었는데, 우리는 그것이 인류 역사상 최후의 비극이기를 바란다. 또한 5개 핵보유국중 4개국이 이 지역에서 수많은 핵실험을 敢行했다.

그러나 인류는 이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原子力산업의 진흥을 전보다 더 강조해야 할 때를 맞이하였고 이를 위해 핵무기 확산저지와 핵실험 전면금지야 이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時點에 와있는 것이다.

핵비확산조약(NPT)은 이 목적을 구체화하는데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이것은 남태평양 非核化지역을 설정하는 협상에도 잘 반영되어 드디어는 Treaty of Rarotonga를 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지금 태평양연안에서는 刮目할만한 급격한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국제사회가 공동번영하는데 相互扶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과 또한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도모해야 한다는 前提下에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가 강조된 것이 Agenda 21로 알려진 "리우데 자네이루의 환경과 개발회의 선언"(Declaration of the Rio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이다.

경제개발을 지속하려면 이의 원동력인 전력을 공급해야 하며 이를 위해 많은 나라에서 化石연료 발전소를 대대적으로 건설하고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엄청난 분량의 탄산가스가 大氣에 방출하게 되었다.

한편 再生가능한 에너지源이 에너지 수요를 메꿀 능력이 없다는 것은 公知의 사실이다. 따라서 원자력이 그 몫을 담당해야 하며 어찌면 이것은 역사적인 必然인 것이다.

원자력계가 특히 명심해야할 사항은 안전성 제고와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 그리고 국민에 대한 올바른 홍보활동이다.

원자력기술은 세계기상기구의 활동, 지구의 기상변화대책강구, 해양연구 등의 국제적 노력에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또한 식량증산과 수자원 개발 및 海충 驅除와 멸균작업에도 필요불가결의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냉전종식과 더불어 핵무기 감축과 재래식 무기의 제한 무드가 널리 퍼져나가고 있어 국제적인 평화정착이 실현되어 가고 있다.

특히 미국과 러시아가 핵탄두를 해체하여 거기에서 빼낸 핵분열물질을 평화적 목적으로 使用하기로 한 것은 극히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애매모호한 원자력정책을 堅持하고 있는 몇몇나라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끊임없이 注目を 기울이고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라크는 IAEA의 핵사찰을 받고 있으면서도 은밀히 핵개발을 추진하다가 발각되었다. 南阿公화국은 6개의 핵탄두에 搭載할 만큼의 무기용 핵물질을 비밀리에 생산 비축하였으나 나중에 그것을 IAEA에 自進申告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확산이라는 차원에서 지극히 염려스러운 단

면을 보이고 있다.

IAEA는 핵사찰을 강화하기 위해 각 방면에 걸쳐 앞으로도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1995년 종료되는 NPT 제도가 그 이후에도 보다 실질적이고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어진 인력과 기술 및 예산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太平洋 연안에서 原子力安全 확보 協力を 위한 미국의 지원책

이반 셀린(Ivan Selin)

미국 핵규제 위원회 위원장

原子力사업을 진흥하는데 要諦가 되는 것은 原子力安全文化를 定着시킴으로써 이것을 數地 選定, 설제, 건설, 운전과 補修에 적극 活用하고 生活化하는 것이다. 국제협력은 원자력 안전의 質을 높이고 提高하는데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원자력의 안전규제에 원자력안전문화가 가장 강조되어야 할 분야는 네가지이다.

- ① 安全性提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하고 獨立인 規制기관을 設立運營해야 한다.
- ② 그 규제기관은 충분한 효율적인 자원, 人力 및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③ 원자력산업계와 규제담당자 共히 핵연료週期를 포함한 모든 원자력 분야에 적응되고 있는 기술基準을 엄격하고 철저하게 遵守해야 한다.
- ④ 국가는 국내法 내지 국제協力에 의거하여

원자력사고에 대비한 損害補償策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위한 法的 및 財政的 責任을 감당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위의 네가지 요소와 그 밖의 몇가지 중점사항을 국제적으로 협의키 위해 오는 6월 국제원자력 안전회의(International Nuclear Safety Convention)을 개최할 예정이다.

미국 NRC는 최근 중부 및 동부 유럽과 옛 소련지역의 독립국가 연합국들에게 원자력안전 확보 증진을 위해 적극 지원키로 하였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원자력을 에너지 生産次元뿐만 아니라 원자력안전문화 관점에서 강력하고 독립적인 규제기관 설립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아울러 장기적인 안전규제 협력방안으로서는 日本, 한국, 대만, 등과 규제요원 훈련 및 공동연구사업 등을 추진중이고 최근에는 이러한 일을 中國에도 확대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협력각서를 작성중에 있다.